

◎ 國內經濟 景氣鎮靜속 構造改善 기대

郭 相 瓊

〈高麗大學校教授·經博〉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는 금년에 비해 성장이 둔화되는 경기의 진정과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완화 및 국제수지적자의 감소로 나타나는 조정국면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나친 호경기와 이에 부수되는 문제가 양면에서 진정되고 해소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금년 경제의 회고와 내년 경제의 전망을 성장, 인플레이션, 국제수지 등으로 나누어 살펴 보기로 한다.

금년 상반기의 경제성장률이 9.1%에 달했는데 이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성장이고 인력난과 세계경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무리한 성장이다. 무리한 성장으로 인해 인플레이션과 무역수지적자라는 부작용을 안게 된 것이다.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경제성장률이 2~3% 떨어지는 대가로 도매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경상수지적자의 폭이 좁아지고 있다. 높은 성장을 뒷받침했던 건설, 투자, 소비, 서비스업 등의 증가율이 진정되면서 초과수요가 낮아지고 수입증가율도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조정은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문제해소를 위해 바람직한 것이다. 도소매물가의 높은 상승률은 주로 농축수산물가격과 개인서비스 요금의 상승에 기인한 것이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인력난과 임금상승이었다. 인력난을 가중시킨 것이 건설경기의 지나친 붐이었는데 이제 건설경기가 진정되면서 인력난도 잠정적으로 약간의 완화가 예상된다. 소비의 증가세가 금년 하반기에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수요를 진정시켜 초과수요를 낮추게 되므로 물가압박이 어느 정도는 완화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금년의 도

매물가 상승률은 2~3%로 낮게 유지되고 있다. 급격히 오르던 임금도 금년에 들어와 상승률이 둔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임금이 물가에 주는 압박도 상대적으로는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건축, 투자, 소비 등의 높은 증가에 의한 과열경기가 수입을 급격히 증가시킨데다 연초의 높은 원유가격과 항공기를 비롯한 특수품의 수입으로 무역수지적자가 예상외로 크게 나타났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완성소비재수입은 총수입의 9.7%에 지나지 않으므로 경기진정은 수입증가를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다. 특히 기계류와 자재 및 특수품의 수입은 금년 상반기를 고비로 하반기에는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 무역수지적자 압력을 완화하고 있다. 수출증가세는 예상보다 나쁘지 않다. 다만 경공업제품의 수출이 부진한데 이는 인력난과 임금상승이 주원인이라 할 수 있다. 금년 1~8월 기간에 신발과 완구의 수출은 작년에 비해 17%와 14%나 줄었고 섬유는 3.4% 증가에 그쳐 경공업제품 수출 자체는 0.9% 증가에 그쳤다. 그러나 중화학공업제품의 수출은 이 기간에 17.4%나 늘어 호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선박수출은 65%나 늘었고 화공품과 자동차의 수출도 각각 36%와 29%가 신장되었다. 전자와 기계의 수출도 18%와 14%로 늘어 수출호조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러한 수출추세는 인력난, 임금상승, 산업구조변화 등으로 우리나라의 수출구조가 경공업제품에서 중화학공업제품으로 바뀌면서 노동집약적인 제품보다 자본집약적인 제품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뜻한다. 이는 대단히 바람직한 수출구조

의 변화로 받아 들일 수 있다.

그동안 민주화에 따른 과도기와 과열경기에 의한 인력난, 노사분규, 근로의욕 감퇴와 생산성 저하, 부동산가격의 급상승, 높은 이자율, 지나친 원화의 평가절상, 높은 소비증가율 등 많은 문제들이 금년 하반기에 접어 들면서 현저하게 해소되고 진정되면서 경제활동 분위기는 크게 개선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경기조절에 의한 문제해소라는 관점에서 경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해 가고 있다는 징조다. 금년 하반기의 경제여건 개선으로 인한 조정국면은 내년도의 경제를 전망하는데 참고가 되는 요인들이라 할 수 있다. 순환과정을 반복하는 경제의 움직임은 이제 문제를 수반하는 호경기에서 문제를 진정시키는 경기진정으로 전환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나친 굴곡을 나타내지 않도록 적절한 조절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

경제전망에는 전제조건으로 가정이 명시되어야 한다. 여러가지 여건을 가정하고 예측을 하는 것이 구체적인 전망이다. 내년의 세계 경제는 전체적으로 금년과 대동소이하다고 본다. 세계 경제의 변화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특징 없이 과거와 비슷할 것으로 본다. 남북관계의 변화가 우리 경제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내년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 금년 하반기에 경제가 상당한 조정국면에 들어 가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가 내년에도 지속된다고 가정한다. 특히 노사관계, 근로의욕, 국민의 의지 등이 개선되고 부동산가격이 상당히 떨어져 부동산경기가 침체될 것으로 보이며 이자율은 떨어지고 환율은 더 올라(평가절하) 갈 것으로 보인다. 인력난은 여전하겠으나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이 보다 적극적일 것이다. 이와 같은 여건을 전제로 내년의 경제성장, 인플레이션, 국제수지, 일반분위기 등을 내다 보기로 한다.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금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농림어업의 성장은 금년보다 더 심한 인력난을 겪으면서 낮은 국면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여 역시 3%의 성장률을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의 성장률은 금년과 비슷하여 7~8%가 될 것이고 경공업은 여전히 성장이 어렵겠지만 중화학 공업은 10% 이상의 성장을 보여 제조업 성장을 주

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 경공업계의 중소기업은 더 어려울 것이나 중화학공업계의 대기업은 금년과 비슷한 처지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은 내년에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한다. 금년 상반기에도 작년에 비해 18.4%나 성장했기 때문에 건축경기의 진정은 건설업의 성장을 크게 둔화시키게 될 것이다. 거의 제로성장이거나 극히 낮은 성장이 예상된다. 제로성장이란 더 늘지 못하고 현상유지를 말하는 것인데 건축만으로는 현상유지도 어려우나 토목이 계속 활기를 잃지 않는다는 전망에서 건설업 자체가 마이너스 성장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건설업이 국내총생산에서 대체로 12~13%의 비중을 차지해 건설업의 둔화는 경제성장률을 1~2%나 둔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10%를 넘는 서비스업의 성장률도 약간은 둔화될 것 같으나 주로 음식숙박업과 일부 도소매업의 둔화에 그치고 비중이 큰 통신, 운송, 보건위생, 금융, 정보 등의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전체를 놓고 볼 때 건설업의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고 나머지 산업은 내년에 금년과 대동소이하겠지만 피부로 느끼는 감각경기는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팽창일로의 경제가 약간 주춤하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하나의 충격이다. 그러나 성장률의 둔화는 인력난의 완화와 물가상승의 진정 그리고 수입증가의 둔화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금년의 도매물가 상승률이 3%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내년도 물가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내년에 도매물가는 금년과 비슷한 상승이거나 오히려 더 낮을 수도 있을 것이다. 임금상승이 둔화되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추세가 물가상승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고 수요-공급에서 수요는 진정되는데 공급은 원활하게 이루어질 전망이어서 도매물가를 특별히 올리게 될 요인이 없다. 금년의 도매물가 3% 상승은 내년의 소비자물가가 안정되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상승을 주도한 것은 농축수산물가격과 개인서비스요금 이었는데 내년에는 수요증가가 진정되면서 공급이 계속 증가할 전망이어서 내년도 소비자물가는 금년보다 약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물가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 임금상승의 둔화와 생산성 향상이다. 내년에는 임금상승률이 낮아지면서 생산

성 향상은 높아질 전망이다기 때문에 안정화에 긍정적인 면이 있다. 대체로 내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에도 국제석유가격은 안정을 유지할 전망이다고 여타 자원이나 상품의 가격도 두드러지게 오를 것 같지 않아 수입물가가 특별히 오를 전망이 없기 때문에 국내물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

내년의 국제수지는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본다. 대동소이한 세계 경제의 추세에 비추어 중화학공업제품의 수출은 여전한 것으로 본다.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 동안에 경공업제품의 수출은 165억5천만 달러로 작년동기비 0.9% 신장에 그친데 비해 중화학공업제품의 수출은 255억3천만 달러로 작년동기비 17.4%나 신장하였다. 비중이 큰 중화학공업제품의 수출이 늘면 전체 수출의 신장은 잘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중화학공업은 자본집약적이기 때문에 인력난과 임금상승에 의한 경쟁력약화의 영향을 적게 받는 면도 있고 내년에 기대되는 근로의욕의 회복과 노사화합 및 임금상승의 둔화 등이 경쟁력강화에 도움이 되리라는 전망이다.

수입에서는 주요품목의 급격한 증가세가 어느정도 진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의 걸프전쟁에 의한 유가의 추가부담에 의한 수입부담이 내년에는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제석유가격도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원료수입에 대한 추가부담은 없을 것 같다. 건축경기과열로 수급차질을 해결하기 위해 늘렸던 건축자재 수입도 내년에는 크게 줄어 들 전망이다. 어쩌면 건축경기의 진정으로 일부품목에서는 수입하던 것을 수출하게 되는 여조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수지개선에 이중효과를 나타내기도 할 것이다. 그동안 추진해 온 제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설비투자용 자본재수입이 크게 신장되었는데 투자가 어느정도 진정됨에 따라 자본재수입이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자본재수입 둔화는 무역수지개선과 동시에 대일무역역조의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국내경기의 과열로 수출기기, 일부 소비재, 중간재, 장비 등의 수입이 금년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러한 수입이 내년에는 상당히 둔화될 전망이어서 수입증가세는 크게 약화 될 것이다. 결국 경기진정의 효과는 수입에 큰 영향을 미쳐 수입증가율의 둔화로 무역수지적

자는 크게 낮아지게 될 것이다. 내년부터는 무역통계에서 통관기준(물량기준) 무역수지지표가 발표되지 않고 국제수지기준(현금기준) 무역수지지표가 발표된다. 금년 9월말 현재까지의 국제수지기준 무역수지적자는 70억 달러 가량인데 내년의 국제수지기준 무역적자는 30~40억 달러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도 경기둔화가 더 심해지면 무역수지적자는 더욱더 줄어 들 것이다. 과소비를 매도하는 목소리가 높아 해외여행이 주춤하여 무역외수가 다소 호전될 수도 있고 여타 대외비용도 낮아질 전망이어서 경상수지적자도 무역수지적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 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 선거가 여러차례 있을 예정인데 선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경제차원에서 보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경제에 대한 선거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선거 때문에 통화를 크게 남발한다거나 재정지출을 집중적으로 늘린다는지 또는 돈에 의한 선거열기를 방지한다는지 등의 무책임한 정부태도는 아닐 것 같다. 선거에 입후보하여 개인적으로 돈을 마련하여 선거비용으로 쓸 수는 있으나 경제자체의 기초가 변하는 선거경제의 몸살은 없을 것으로 내다 본다. 선거에 의한 특별한 물가상승이나 국제수지적자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세계에서 최고의 성장률을 수년간 유지해 온 우리나라 경제는 이제 조정국면에 들어가야 할 처지에 있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할 필요도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인력공급이 제한되어 있는데다 임금, 자율, 국제화가 크게 높아진 상태이므로 높은 성장의 호경기는 지속될 수가 없다. 겉으로 나타나는 지표상의 변화보다 내용상의 알찬 변화와 발전이 강조되어 선진화할 수 있는 기틀이 잡혀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인력난 해소를 위한 구조조정(자동화), 노사화합, 근로의욕 고취, 책임의식 확보, 시장기능에 의한 자율화로 진정한 안정화 구축, 장기안목의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 일관된 정책수립과 신뢰구축 그리고 성숙된 시민의식과 부정부패 척결 등 마음에서 우러나는 발전의욕이 절실하다고 본다. 이러한 점들이 다소나마 개선되고 진전될 전망이어서 우리나라 경제는 내년에 더 건전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